

건강 칼럼

쉽게 빠지지 않는 뱃살 문제, 알고 보니 자궁근종?

30대 직장인 여성들이나 40대 주부들은 불룩하게 튀어나온 아랫배, 흔히 똥배라고 부르는 증상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운동이나 식단 조절을 꾸준히 해도 아랫배가 그대로 있거나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경우 자궁근종을 의심해봐야 한다. 자궁근종은 과거 40대 이상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20~3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흔히 발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자궁근종 환자 수가 59.3% 증가했으며, 이중 20~30대 환자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

자궁을 이루고 있는 평활근에서 세포 중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발생하는 양성종양을 자궁근종이라고 부르며,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크기가 개수나 환자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데, 크기가 10cm 이상으로 크거나 여러 개의 근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고 일상에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 치료하는 것이 좋다. 자궁근종으로 인해 자궁 내막



최 동 석
최상신부인과 대표원장

이 확장될 경우 부정출혈이나 극심한 생리통이 발생할 수 있다. 간혹 생리 양이 많아져서 덩어리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근종이 자궁의 장막 아래에 위치할 경우에는 방광을 자극하기도 하고, 근종이 자궁의 장막 아래에 위치할 경우에는 방광을 자극하기도 하고, 근종이 자궁의 장막 아래에 위치할 경우에는 방광을 자극하기도 한다.

또한 자궁 안쪽 근육층에 발생하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여 조기유산, 혹은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밖에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전체의 약 50% 정도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 종양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질 경우 똥배처럼 아랫배가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단순한 복부 비만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미혼 여성들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이후 증상이 심각해져서 병

원에 내원하게 되면 이미 근종의 크기가 커져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만 증상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번은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특별한 증상이 없고 종양의 크기가 작다면 추적관찰을 진행하면서 근종의 크기를 줄여주는 약물 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증상이 뚜렷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라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치료 방법에는 크게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이 있다.

수술적 방법에는 자궁적출술, 북강경수술, 로봇수술 등이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자궁 내막을 손상시키고 가임력을 훼손할 수 있어 임신 계획이 있는 가임기 여성이라면 비수술적 방법을 통한 자궁근종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이푸 시술은 고강도 집중 초음파를 이용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근종을 선택적으로 태워서 과사시키는 시술이다. 개복이나 절개 과정이 없어 출혈이 적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가족계획이 있는 여성이라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자궁근종이 하이푸 시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종의 크거나 모양에 따라 로봇수술을 선택하기도 한다. 자궁근종 로봇수술은 최소 침습 형태의 수술 중 가장 발달된 형태로 배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내어 삽입한 로봇 장비를 의사가 직접 조종하여 진행하는 북강경수술의 일종이다. 흉터가 작고 출혈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심세한 치료가 가능해 정상 자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치료에 앞서 무엇보다 병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무조건 특정 방법을 추천하는 곳은 주의하는 것도 병원을 잘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사설

새만금 사업 안갯속

새만금 사업이 안갯속에 빠져 들었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비롯됐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쟁버리 파행 책임을 전부에 씌우고 있다. 새만금에 미칠 파장에 전라북도과 민주당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새만금은 2060년 용지 개발을 끝내는 걸 목표로 기본 계획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불길한 전조다. 국무총리는 부처에다가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기본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했다. 새만금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어야 하며, 목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 흔들기'를 또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낳고 있다. 국토부는 또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전라북도도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려는 게 아니라면, 새만금 재검토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쟁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지시 논란에 새만금개발청은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는 통상적 절차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문제점이 나타난 새만금 개발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직무 유기라고 대변인 논평을 냈다. 새만금 사업이 불안하다.

전북민화회 회원전에 거는 기대

제14회 전북민화회 회원전이 지난 8월 전북예술회관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번 전시는 '민화에서 우리 시대의 희망을 읽다'를 주제로 열렸다. 대중과의 소통에 초점을 두었다.

참여 작가는 김다빈, 김연수, 김연아, 김인순, 김종숙, 박애영, 박정자, 박형근, 송승연, 신윤서, 안순영, 윤아영, 윤현덕, 이경숙, 이숙, 이순덕, 이은경, 이자량, 이정임, 이해영, 이현숙, 이현옥, 장순호, 장창영, 정은희, 최혜영, 홍사름 등 총 27명이다.

작가들은 작품을 선보이는 마음이 늘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현숙 전북민화회 회장은 "최근 민화 분야에 세계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었지만, 대중과의 소통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화(民畵)는 민족이나 개인이 생활 습속에 따라 제작한

대중적인 실용화다. 넓은 의미에서는 직업 화가인 도화서의 화원이나 화가로서의 재질과 소양을 갖춘 화공의 그림을 포함한다.

복 받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벽사진경의 열원, 신앙과 생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마음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낸 전통 사회의 산물이다.

민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신석기시대의 알벽화, 청동기시대의 공예품, 삼국시대의 고분 벽화와 전(塼), 고려·조선 시대의 미술 공예품에 민화와 같은 그림이 많다.

알벽화의 동물 그림, 고구려 벽화의 사신도(四神圖), 신선도, 해·구름·바위·산·영지(靈芝) 등의 장생도(長生圖), 수렵도, 백제의 산수문전(山水文傳)의 산수도 등은 연원을 밝힐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 전시로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더욱 넓혀가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대선 앞둔 아르헨티나 거리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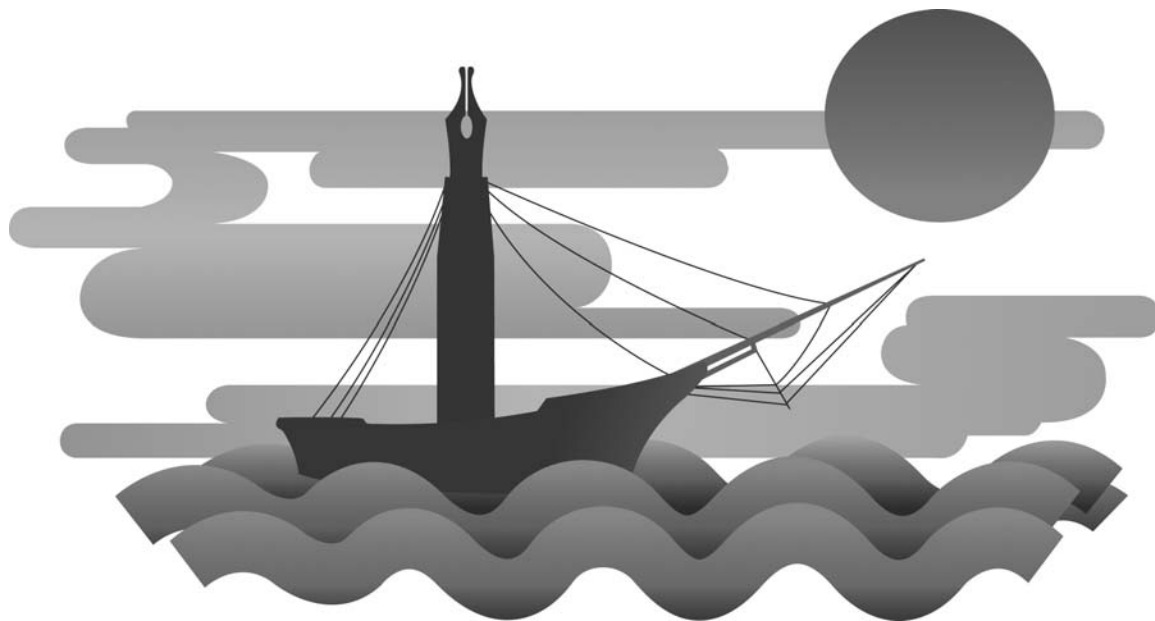
5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가에 놓인 손수레에 아르헨티나 국기가 걸려 있다. 아르헨티나 대선은 10월 22일에 열린다.

'원주민의 날' 기념 촬영하는 룰라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가운데) 브라질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아마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니아 구아지라(오른쪽) 원주민 장관, 조에니아 오펜하이머 국립원주민재단 이사장과 원주민 구획 명패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